

새정부 출범후 위상도 비전도 흐려졌다

뉴스 초점

활로 못찾는 호남정치

제3기 민주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민주 세력의 중심이자 심장이었던 호남 정치가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위기에 빠져있고 민주당에서 호남의 위상도 예전 같지 않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치권의 변방 세력으로 머물지 않느냐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우선 지난 총선에서 호남의 지지도 제3당으로 도약한 국민의당은 대선 패배에 이어 당내 내분으로 위기 국면 탈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치를 예정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반안(반 안철수) 세력과 친안(친 안철수) 진영이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쉽지 않은 전망이다. 주목할 점은, 호남 중진들의 무기력이다. 당내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

국민의당, 중진의원도 조선의원도 제 역할 못하고 무기력 민주당, 전국 정당화 방침... 호남 색깔 퇴색 존재감 희미 내년 지방선거... 호남의 미래 위해 지역인재 찾고 키워야

휘하지 못하고 있다. 중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은 당은 물론 호남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강행한 것도 결국 호남 중진들의 정치적 무기력에 기반하고 있다. 여기에 호남 초·재선들도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관료 출신 의원들은 정치적 존재감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호남 민심이 만들었던 '제3의 길'을 국민의당이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면서 호남 정치가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에서도 호남 정치의 미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일단 구조적으로 친노·친

문의 영향력 밑에 있는 상황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 독자적인 정치적 존재감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민들은 이들 일부 인사들에 대해 호남의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호남의 색깔은 많이 지워졌다. 호남 현역 의원들이 단 3명에 불과한 탓도 있지만 이제 민주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기 보다는 사실상 전국 정당화에 방침이 짝쳐져 있다. 호남은 필요하지만 과거처럼 절대적이지 않다는 절서가 은연중에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출범은 호남에게 기회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발판삼아 호남의 인재를 찾고 키워나간다면 미래를 기약할 수 있지만 기존의 구도에 안주하는데 그친다면 호남은 향후 수십 년 동안 대권 주자도 못 내는 정치적 불인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는 호남의 정치적 진로에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완승이 예견되고 있지만 호남 유권자들의 보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내년 지방선거의 이슈가 '호남의 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당을 떠나 '될 성 부른 떡 일'을 찾아내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 승리가 '그들만의 영광'이 아닌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호남에서의 바람은 당이 아닌 인재에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벨베 고수들의 레이싱 지난 12일 보성군 벨베고수장이 어촌체험마을에서 열린 '제4회 전남도지사배 레저 벨베대회'에서 전문가 부문에 참가한 선수들이 벨베 레이싱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경찰 지휘부 갈등 부끄럽고 죄송”... 김부겸 장관 대국민 사과

광주일보 보도로 촉발된

‘민주성지’ 삭제 의혹 관련

김장관 “비방·반론 중지”

광주일보 보도로 촉발된 경찰 지휘부 SNS 게시물 삭제지시 의혹과 관련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수뇌부가 13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지휘부 회의에 참석, “최근 경찰 지휘부 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인 제가 국민 앞에 앞드려 사죄 드린다”고 대국민 사과했다. 회의에는 SNS 삭제지시 논란 당사자인 이철성 경찰청장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고위 간부가 대거 참석했다. 그는 대국민 사과에 앞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논란의 당사자인 이철성 경찰청장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장을 향해 “오늘 이후 당사자들은 일체 자기 주장이나 상대 비방 반론 중지하라”고 지시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이철성 경찰청장(왼쪽 두번째),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오른쪽) 등 경찰 지휘부가 13일 오후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SNS 게시물 삭제지시 의혹과 관련, 국민에게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재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장과 강 학교장도 이 자리에서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이 광주지방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하나를 콕집어 삭제하라’는 지시를 당시 광주지방경찰청장인 강 학교

장에게 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삭제된 게시물은 ‘민주성지 광주, 광주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 학교장은 해당 페이스북이 삭제된 직후 광주일보의 답변 요청에 “현재 코멘트 할 수 없다”는 취지로만 답했으나(광주일보 2016년 11월 21일 6면 보도 등) 최근 언론과 맞닥뜨리 만나 “당시 게시물 삭제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지시에 의한 것”, “이 과정에서 이 청장이 촛불집회를 비하했다”, “이 청장이 나와 통화하면서 민주성지 광주에 대해 비아냥거렸다”고 뒤늦게 주장했다.

강 학교장의 주장에 대해 이 경찰청장이 “삭제 지시는커녕 전화를 건 기억도 없다”고 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사망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트럼프 “北 어떤 행동이라도 후회하게 될 것”

미국과 북한 간 설전이 극한대립으로 치달으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과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령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북한에 위협에 대해 “그가(김정은)가 끝이나 다른 곳에 대해, 그곳이 미국 영토든 동맹국이든, 어떤 행동이라도 한다면 그는 진짜로 그 행동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빠르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북한은 내가 말한 것의 중대함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현명하지 않게 행동할 경우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며 대북 군사 대응 태세에 들어갔음을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괌 포위사격 검토’로 맞대응에 나서자 10일엔 “북한이 괌에 무슨 짓을 한다면, 아마 그 누구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이 북한에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직 늦지 않았다. 조금 늦은 바캉스를 위한 무안출발 해외여행!

하나Pack 클래식 AVPF13_TWA

전일정 5성급호텔 + 호이안 야간시티투어
다낭 · 호이안 · 후에 5일

총 상품가격 7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7월 27일(목)~10월 29일(일) / 날짜별 요일 상이

티웨이항공

호이안 야간시티투어 (\$30상당) 포함

하나Pack 캐주얼 APPF10_BY6

세계 3대 화이트 비치
보라카이 아잘리아리조트 4일·5일

총 상품가격 74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50 /선택경비 있음

7월 29일(토)~8월 30일(수) / 날짜별 요일 상이

팬퍼시픽 항공

크리스탈코브 호핑투어(\$60 상당), 세일링보트(\$15 상당), 오일마사지(\$15 상당) 포함

광주일보 고객만을 위한 혜택

셀카파티스튜디오 전시회
무료입장권 1인당 2매 제공

전시일자 : 17년 10월 15일
장 소 : 광주 KIA챔피언스필드 1F 전시장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통해 예약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충장점
062) 228-1199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함료, 관광진흥기금기부,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행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 지불하여야 합니다. ■(여행상품 내용)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nt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착에 따라 자유형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nt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 여하에 따라 여행상품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의 사전 통지를 받습니다. ■관광사설사 등록번호 제269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2층 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청산/불편금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여행 보증보험 22억 (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재항공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시 대체여행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nt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1.여행 유의 2.여행 자제 3.참수 권고 4.여행 금지